

##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가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중호 김명섭\*\* 김은지 김윤지 이병운  
서울대학교

## The effects of fit between life purpose and volunteering on the volunteering continua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change in life

Shin, Jongho Kim, Myung-Seop\*\* Kim, Eunji Kim, Yoonji Lee, Byung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ARTICLE INFO

#### Article history:

Received Aug 15 2017

Revised Sep 25 2017

Accepted Sep 27 2017

#### Keywords:

Purpose in Life,

Volunteering,

Person-Environment Fit (P-E  
Fit)

#### 주제어:

삶의 목적, 봉사활동,  
개인-조직 적합도

### ABSTRACT

As interest in volunteer activities has recently increase, the number of volunteers is also rapidly increasing.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continue to continue on volunteering after their first volunteering experience, however, is not h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fit between purpose in life and voluntary service (fit P-V) on the continuance of volunteering. Specifically, we hypothesized that the higher the fit P-V is, the greate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volunteering activities and the awareness of the change in life become. These would increase the willingness to continue to volunteer. A total of 181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multiple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fit P-V positively affected the intention to continue volunteering activities. The mediating role of the satisfaction with volunteering and awareness of change in life was also found. Institutional efforts considering the fit P-V can increase the willingness of continuous volunteering. These efforts could enhance the willingness of volunteering activities by helping the youth to experience subjective satisfaction and self-realization through volunteering activities.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는 인식 정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연구에는 봉사활동 수업을 수강 중인 서울 지역 대학생 181명이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는 인식 정도는 삶의-목적 봉사활동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본 연구는 미국 John Templeton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John Templeton Foundation (grant number 43284))

\*\* Corresponding author, edukms@snu.ac.kr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봉사활동은 청소년 발달과 교육 측면에서 중요하다. 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유능감, 행복, 삶의 만족을 높이는 등 건강한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의식을 높임으로써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Weinstein & Ryan, 2010; Yorio & Ye, 2012). 이에 따라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봉사자의 전문성 개발이나 봉사활동의 질적 발전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종수, 2012; 오효근·김옥, 2008). 이와 관련하여 봉사활동의 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봉사자의 개인 특성과 봉사활동 기관과 관련된 환경 특성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을 구분하는 접근은 봉사활동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보다 개인과 환경 간의 역동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두 요인을 구분하기보다는 함께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적, 환경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개인-환경 적합도(P-E fit, person-environment fit)는 유용한 접근의 틀이 될 수 있다. 개인-환경 적합도 접근에 따르면 특정 행동에 대한 만족도,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특성과 조직-환경 간의 일치도가 높아야 한다(Jansen & Kristof-Brown, 2006; Tom, 1971). 즉, 가치, 신념, 성격 등 개인의 특성과 담당 업무, 상사 및 동료, 기업 문화와 같은 조직적·환경적 특성 간에 일치도가 높을 때, 개인은 자신의 활동에 만족하고, 더욱 전념하게 된다.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설명하는 데에도 개인-환경 적합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도 개인의 특성, 가치가 봉사 업무, 조직 특성과 일치할수록 봉사자는 더욱 만족감을 느끼고, 이는 다시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봉사활동의 경우 별도의 경제적 보수가 제공되지 않고 활동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참여 동기이기 때문에 봉사자가 자신과 봉사활동 간에 일치도가 낮다고 지각할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급격히 줄어들 위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개인-환경 적합도 가운데 가치 측면에서 개인과 조직이 일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Edwards & Cable, 2009; Chatman, 1989; Kristof, 1996).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관련하여 최근 삶의 목적(purpose in life)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삶의 목적은 내가 왜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이자 궁극의 목표이다(Bronk, 2013; Damon, 2008). 삶의 목적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들

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준거로서 기능한다(Han, 2015; McKnight & Kashdan, 2009). 삶의 목적과 하위 목표들 간에 통일성이 부여될 때 개인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활동에 더 잘 몰입할 수 있게 된다(Bronk, 2013; Kashdan & McKnight, 2009).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관련이 높을 경우 개인은 봉사활동 경험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이는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환경 적합도의 관점에서 개인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와 지속의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가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가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지각이 매개 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두 가지 이유에서 매개 효과를 가정하였다. 첫째, 기존 개인-환경 적합도 접근에서 제시하듯 삶의 목적과 같은 개인의 가치관과 봉사활동 경험 사이에 일치도가 높을 경우 개인이 봉사활동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 approach)에서는 봉사자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며, 이 만족감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핵심적이라고 지적한다(Clary et al., 1998). 실제 몇몇 연구들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봉사활동을 통해 충분히 구현되었다는 인식은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박철훈, 김행열, 2013; Finkelstein, 2008). 그러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환경 간 일치 수준과 봉사활동 지속의사 사이를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개하는지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 관계를 좀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삶의 목적이 인생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환경 간 일치도가 높을 경우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 자체가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봉사활동과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일치할 경우, 개인에게는 봉사활동 경험은 곧 자신의 삶의 목적을 실천하는 기회가 된다. 삶의 목적에 따른 헌신과 실천은 삶의 목적 발달을 돕는 식으로 선순환하는 발달적 경향을 보인다(Bronk, 2011). 이는 삶의 목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특정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등 삶의 목적의 의미를 더 분명히 지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의 관련성이 높을 경우 이 효과는 삶 전반에 걸친 긍정적 변화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봉사활동 지속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지각된 삶의 변화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봉사

활동 지속의사를 높이는 데 있어 개인의 삶의 목적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삶의 목적-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문제 2. 삶의 목적-봉사활동 간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관계를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삶의 목적-봉사활동 간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관계를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매개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A. 봉사활동 지속의사

봉사활동 지속의사는 봉사활동 지속성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배성은·김태진·정운수, 2015; 오효근·김옥, 2008). 봉사활동 지속성은 봉사활동에 한 번 참여를 경험한 후 다시 봉사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Penner, 2002).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의 효과는 활동 기간이 길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봉사활동 지속의사는 봉사활동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Astin & Sax, 1998).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얼마나 충족되느냐가 지속의사에 있어 중요하다는 연구들이다(Clary & Snyder, 1999).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동기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속의사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여섯 가지 동기에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가치(values) 동기, 자신이 배운 기술을 활용하거나 학습을 증진시키려는 이해(understanding) 동기, 자신의 심리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향상(enhancement) 동기, 이후 진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경력(career) 동기, 타인과 관계 맺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사회적(social) 동기, 자신의 문제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보호(protective) 동기가 포함된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충족될수록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지속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y et al., 1998).

국내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강대선 등(2010)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동기는 향상동기, 가치 동기, 경력 동기, 이해 동기, 보호 동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치 동기, 사회적 동기, 보호 동기가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봉사 참여자의 동기가 충족되는 경험은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봉사활동 지속의사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 흐름은 봉사활동 관련 기관의 관리 방식, 직무 특성과 같은 조직적 차원이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봉사자 교육, 효율적 직무배치와 같은 체계적인 봉사자 관리가 지속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한다(김제법, 2011; 강종수, 2012; 류기형, 2008; 배성은-김태진-정운수, 2015). 이외에도 봉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인정과 보상, 봉사자에 대한 처우와 피드백 또한 조직 차원에서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Penner, 2002). 조직이 봉사자들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게 대우할수록 또 활동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수록 봉사활동 지속의사가 높았다. 이 연구들은 봉사 참여자의 개인 변인 이외에 봉사 활동 및 기관의 특성 또한 지속의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연구 흐름이 전적으로 구분되는 것만은 아니다.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이 서로 별개로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Penner(2002)는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인구 통계학적 특성,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 친사회적 성격, 참여 특성 등 개인적 요소와 조직과의 관계와 같은 환경적 요소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지속적인 봉사참여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과 조직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대한 Penner의 모델에서 봉사활동의 지속성은 개인의 기질적 요소와 업무 및 동료 특성 등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즉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 봉사활동, 봉사활동 조직의 특성 등을 보다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B.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

최근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에서도 개인과 환경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 정도(Person-environment fit)가 높을수록 특정 행동에 대한 만족도, 동기가 높아진다. 실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 논문 172편을 메타 분석한 Kristof-Brown 등의 연구(Kristof-Brown, Zimmerman, & Johnson, 2005)에 따르면 개인-환경

적합도가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 참여가 높았고, 이직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환경 간의 적합도의 긍정적 기능은 봉사활동에서도 나타났다. 388명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개인-환경 적합도, 봉사활동 만족도, 지속의사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Van Vianen, Nijstad, & Voskuil, 2008)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과 조직 간의 일치도 정도는 봉사활동 지속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다.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개인이 가진 가치와 조직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이다. 2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개인-환경 적합도와 직무 만족도, 헌신 수준, 지속의사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연구(Verquer, Beehr, & Wagner, 2003)에 따르면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조직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일치할 때 가장 높은 직무 만족도, 헌신 수준, 지속의사를 보였다. 가치에 있어서 일치 수준은 목표 일치 수준이나, 성격 일치 수준보다 지속의사와 더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는 봉사활동 과정에서도 가치에 있어 일치성이 지속의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이 가진 가치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는 개인이 가진 삶의 목적이다. 삶의 목적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이자 궁극의 목표이다(Bronk, 2013; Damon, 2008). 삶의 목적은 개인에게 삶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최상위의 목표이자 가치이기도 하다(McKnight & Kashdan, 2009). 실제 여러 연구에서 개인은 삶의 목적과 일치하는 활동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며, 활동에 부여하는 의미 또한 높았다(Bronk, 2008). 자신의 삶의 목적과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등의 경험은 활동의 의미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봉사활동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봉사활동 기관에서 부여한 역할, 업무, 환경을 비롯하여 봉사활동 중 만나는 사람들, 봉사활동에 필요한 능력 등이 자신이 중요시하는 삶의 목적과 일치할 경우 개인은 해당 활동에서 의미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인 참여자의 경우 봉사활동 중 자신이 하는 일, 기관의 성격, 만나는 사람 등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일치할 경우 봉사활동 경험을 더욱 의미있는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당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높을 경우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사 또한 높아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 C.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활동을 얼마나 즐기고, 중요도를 부여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

(Gidron, 1983). 이는 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정서와 관련 있다.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와 유사하게 개인이 가진 동기적 특성, 조직의 특성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를 통해 볼 때,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가 높을 경우 이는 개인에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와 지속의사를 높일 수 있다(Clary et al.,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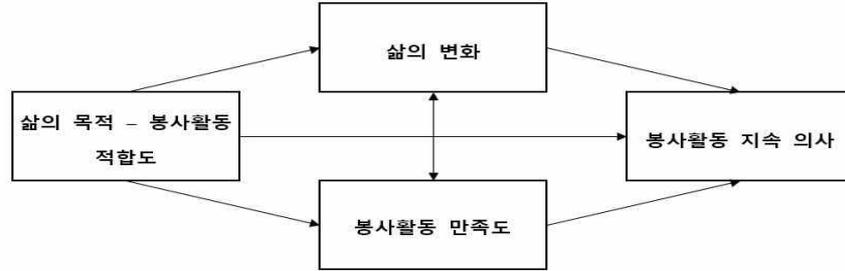
그러나 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사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활동 중에 경험하는 반면, 봉사활동 지속의사는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 유사한 활동을 지속할 것인지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봉사활동 만족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선행 변인이다(Marta & Pozzi, 2008; Omoto & Snyder, 1995). 실제 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사 간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들에서 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사 간에는 대략 .20~.40의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봉사활동 만족도에는 봉사활동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만, 봉사활동 지속의사에는 긍정적 경험 이외에 봉사 정체성(volunteer role identity)와 같은 다른 요소들 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두 변인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봉사활동 만족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구분하고, 만족도를 지속의사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설정하고 있다(Marta & Pozzi, 2008; Omoto & Snyder, 1995).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봉사활동 만족도가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 D.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참여자 스스로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방향이 얼마나 변화했는가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삶의 목적은 개인이 일생에 걸쳐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현재 진행 중인 활동 사이에 일치도가 높을 경우, 이는 개인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Hill & Burrow, 2012). 실제로 삶의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Bronk, 2011)에 따르면 이들은 삶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할 때 삶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며, 이는 다시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선순환을 보였다. 즉 삶의 목적에 따른 삶을 살 때, 개인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높일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했다는 주관적 인식은 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의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omkovick, Lester, Flunker, & Wells, 2008)

따라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개인에게 자신의 삶이 변화한다는 인식을 높이고, 이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의사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와 봉사활동 참여의사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모형을 아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Ⅲ. 연구 방법

#### A. 연구 참여자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서 봉사활동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 181명이 참여하였다. 평균 연령은 22.3세(표준편차=2.01세)였으며, 여학생 114명(62.98%), 남학생 67명(37.02%) 이었다. 이 대학의 봉사활동 수업은 1학점 강의로 대학에서 선정한 봉사활동 기관 중 한 곳을 학생이 선택하여 한 학기 동안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봉사활동 기관은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장애인 지원센터, 환경보호 관련 기관 등 다양했다. 대학에서는 교수자 1명을 선정하여 학기초와 학기말에 봉사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정리 활동을 진행하고, 학기 중에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한 강좌당 대략 10~20명의 학생이 수업을 수강하며, 본 연구는 총 24개 강의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B.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Moran과 Mariano (2013)가 대학생 봉사활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번안 과정에서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한 연구자가 1차 번안을 한 후, 이를 재번역하여 의미 전달에서 오류가 없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Moran과

Mariano(2013)의 척도 중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경우 단일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점과 관련해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단일문항 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만족도, 지속의사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기도 했으며, 이렇게 측정한 경우 타당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Fisher, Matthews, & Gibbons, 2015; Wanous, Reichers, Hudy, 1997). 특히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이 분명할 경우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다(Diamantopoulos, Sarstedt, Fuchs, Wilczynski, & Kaiser, 2012). 그러나 여전히 단일 문항을 사용하는 것은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e.g. DeVellis, 2016).

### 1. 봉사활동 지속의사

지속의사는 학기말에 이후 같은 유형의 봉사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은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5점 척도로 된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수업 이후에 이런 유형의 활동에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 2.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참여자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경험 간의 일치 수준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학기말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지금까지 진행한 봉사활동 경험을 떠올리게 한 후, 이 경험과 자신의 삶의 목적 간의 일치 수준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3점 척도로 된 7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본 수업의 현장실습과 내 삶의 목적은 ‘비슷한 환경이다’, ‘유사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비슷한 역할이 포함되어 있다’, ‘비슷한 유형의 동료들이 있다’, ‘비슷한 유형의 도움을 받는 사람과 만난다’, ‘내 정체성, 자아개념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비슷한 지식, 기술을 활용한다’였으며,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46로 높게 나타났다.

### 3.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봉사활동 과정 중 느낀 주관적 만족감에 대해 측정하였다. 6점 척도로 된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최근 봉사활동 경험을 떠올리게 한 후 이때 ‘얼마나 만족감을 느꼈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 4.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는 학기말에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삶의 방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묻는 단일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봉사활동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6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C.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봉사활동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 중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학기 초에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우선 수집하였으며, 이후 학기 종료 후에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이 모두 종료된 후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지에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최근 봉사활동 경험을 떠올리게 한 후,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후,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봉사활동 수업 수강 여부를 제외하고는 연구 참여에 별도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 D.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를 독립변인으로,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변인이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매개변인이 2개이기 때문에 Hayes 등이 제안한 다중매개효과(multiple mediation) 검정 절차를 사용하였다(Hayes, 2013; Preacher & Hayes, 2008). 이 절차는 다른 매개요인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각 매개변인의 효과 검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연구 모형에 2개 이상의 매개변인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1)</sup>. SPSS 프로그램 상에 PROCESS 옵션을

1) 독립변인을 X, 종속변인을 Y, *i*번째 매개변인을 각각  $M_i$ , 오차항을  $e$ 라 할 때, 1번째 매개변인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Hayes, 2013).

$$M_i = i_{M_i} + a_i X + e_{M_i} \quad (\text{이때 } a_i \text{는 독립변인이 } i\text{번째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력})$$

전체 매개 모형은 아래와 같다.

$$Y = i_Y + cX + \sum_{i=1}^k b_i M_i + e_Y \quad (b_i \text{는 독립변인의 영향력}(c) \text{과 다른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 i\text{번째 매개변인의 영향력})$$

설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http://afhayes.com/public/docaddendum.pdf). 부트스트랩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표본은 1,000회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 IV. 연구 결과

### A.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은 .23 ~ .49의 범위를 보였으며, 모든 변인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서 왜도는 절댓값 2이하, 첨도는 절댓값 4이하로 나타나 정상분포조건을 만족하였으며(Curran, West, & Finch, 1996),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분산팽창도(VIF)는 2이하로 나타나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1	2	3	4
1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			
2 봉사활동 만족도	.23***	-		
3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27***	.38***	-	
4 봉사활동 지속의사	.28***	.49***	.44***	-
평균	1.00	3.94	3.19	3.47
표준편차	0.46	1.01	1.25	1.14
왜도	0.18	-0.26	-0.17	-0.35
첨도	-0.32	0.46	-0.80	-0.82

\*\*  $p < .01$ , \*\*\*  $p < .001$

### B. 다중 매개효과 검정

매개변인 투입 전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지를 우선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63$ ,  $t = 3.85$ ,  $p < .001$ ).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높아질수록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사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의 관계를 봉사활동 만족도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가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우선 매개변인인 봉사활동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이 종속변수 분산의 7%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봉사활동 만족도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했다 ( $\beta = .31, t = 3.71, p = .002$ ). 또 다른 매개변인인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정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는 설정한 모형이 종속변수 분산의 5%를 유의하게 설명했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eta = .18, t = 3.19, p < .001$ ). 즉,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정도에 대한 지각,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두고,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종속변인으로 둔 모형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종속변수 분산의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의 설명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 $\beta = .11, t = 1.90, p = .060$ ), 봉사활동 만족도,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의 영향력은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서로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각  $\beta = .34, t = 5.18, p = .002, \beta = .26, t = 3.93, p = .001$ ).

부트스트랩 방식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 효과는 .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변화 정도의 매개효과 또한 .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매개효과를 고려하기 전에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가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매개효과를 통제했을 경우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의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두 간접 효과만이 지속의사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검정 결과를 <표 2>에 매개효과 검정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 간 관계에 있어 봉사활동 만족도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정 결과

	효과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직접 효과 (적합도 → 지속의사)	.28	.15	[-0.02, 0.58]
간접 효과 (적합도 → 만족도 → 지속의사)	.18	.07	[0.07, 0.34]
간접 효과 (적합도 → 삶의 변화 → 지속의사)	.16	.06	[0.07, 0.30]

〈표 3〉 삶의 목적-봉사활동 적합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 간 관계에 있어 봉사활동 만족도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의 매개효과 검정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봉사활동 만족도 [매개변인]					
	R <sup>2</sup>	β	B	표준 오차	t	95% 신뢰구간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07***	.31	0.67	.18	3.71***	[0.31, 1.03]
독립변인	종속변인: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매개변인]					
	R <sup>2</sup>	β	B	표준 오차	t	95% 신뢰구간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05**	.18	0.48	.15	3.19***	[0.18, 0.78]
독립변인	종속변인: 봉사활동 지속의사					
	R <sup>2</sup>	β	B	표준 오차	t	95% 신뢰구간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	.30***	.11	0.28	.15	1.90	[-0.02, 0.58]
봉사활동 만족도		.34	0.38	.07	5.18***	[0.23, 0.52]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26	0.24	.06	3.93***	[0.12, 0.36]

\*\*  $p < .01$ , \*\*\*  $p < .001$

##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봉사활동 과정에서 대학생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 수준이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이 과정에서 봉사활동 만족도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 정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적합도는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봉사활동 지속의사가 높아졌다. 이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조직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조직에 대한 헌신, 지속의사 등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Edwards & Cable, 2009; Ostroff, Shin, & Kinicki, 2005; Verquer et al., 2003).

둘째,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가 지속의사에 미치는 효과를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가 높아짐에 따라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봉사활동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봉사활동 지속의사에 영향을 끼쳤다. 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봉사활동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만족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속의사가 높아진다(Clary et al., 1998). 자신의 삶의 목적과 유사한 활동을 했다는 인식 또한 일종의 욕구 충족 경험으로 간주해볼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 또한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이기 때문이다(Steger, Kashdan, Sullivan, & Lorentz, 2008; Steger, Oishi, & Kashdan, 2009). 따라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높은 일치는 일종의 욕구 충족 과정으로 작용하여 봉사활동 만족도를 높이고, 이로써 지속의사를 높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셋째, 삶의 변화에 대한 지각 또한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와 봉사활동 지속의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목적의 발달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삶의 목적의 발달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 실천 사이를 계속 순환하는 구조를 보인다. 다시 말해 인식 자체가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천의 과정 자체가 다시 인식을 높이는 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Bronk, 2011). 봉사활동 과정과 자신의 삶의 목적 간에 일치도가 높을 경우 봉사활동 과정은 곧 자신의 삶의 목적을 실천해보는 기회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보다 더 분명히 하도록 도움으로써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삶의 변화는 다시 봉사활동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는 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는 인식이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대학생의 봉사활동 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개인이 가진 삶의 목적을 살피고, 이와 유사성이 높은 활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는 생각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미 의무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참여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봉사활동에 임함에 있어 개인의 가치와 본인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한 후, 이와 유사한 활동을 안내하는 등의 사전 작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의 적합도를 높임으로써 봉사활동에 대한 장기적 참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관련을 높일 방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 또한 중요하다.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하다(Moran, 2014). 이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로,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삶의 발달에 대한 관심이 적은 한국 학생들은 이 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의 목적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Damon, 2008), 삶의 목적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봉사활동 시작 전 단계에서도 삶의 목적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진로 교육 과정에서 삶의 목적에 대한 교육을 함께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보다 전인적인 성장을 고려할 때, 진로 교육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와 같은 접근에서 벗어나, 어떤 삶을 살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도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직업 선택만 강조할 경우 특정 직업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한 고민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자신의 일상적 활동 및 직업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허무를 줄이고 보다 개인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목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더 높게 지각하도록 한 후에, 이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구안함으로써 봉사활동의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로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적 실천에 청소년의 삶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 또한 존재한다. 첫째, 자기보고식 검사 이외에 다양한 측정 방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지속의사를 연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의사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지만 여기서 측정한 지속의사가 실제 추후 봉사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사회적 바람직성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지속의사를 과잉 보고했을 가능성 또한 있다. 추후 지속의사를 밝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방법 부분에서 언급했듯 연구에 사용한 일부 변수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직무 만족도 등에 있어 단일 문항과 복수 문항 간 상관성이 받아들일만한 수준이라는 연구가 존재하지만, 단일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우려 또한 높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현실상의 제약 때문에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지만, 이후 연구에서는 복수 문항으로서 측정했을 경우 현재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이 차이가 측정방식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OLS (ordinary least square) 추정방법의 경우 척도의 등간성 가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일부 측정도구의 경우 등간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추후 연구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참여자가 서울 소재 대학의 봉사활동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들에 국한되었다는 점 또한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특정 지역, 특정 대학 학생들을 편의 표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이에 비

취 연구 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추후 지역과 대학을 달리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목적과 봉사활동 경험 간의 일치 정도를 살폈지만, 구체적으로 개인들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봉사활동 경험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일치한다고 지각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삶의 목적의 내용에 따라 봉사활동 경험과 일치 수준의 지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봉사활동 경험 간의 관련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진 삶의 목적 내용에 따라 어떤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청소년의 인성계발과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돕고, 보다 공동체지향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대선, 배의식, 류기형(2010). 자원봉사자의 참여 동기와 유형별 자원봉사과업만족도 및 지속의지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4), 59-77.
- [Kang, D.-S., Bae, U.-S., & Ryu, K.-H.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s' motive, task satisfaction and retention wil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4), 59-77.]
- 강중수(2012). 자원봉사활동 직무특성이 활동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2), 322-330.
- [Kang, J.-S. (2012). Effect on the work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will by volunteer's job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2), 322-330.]
- 김제법(2011).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여부에 미치는 요인. **노인의료복지연구**, 3(1), 41-52.
- [Kim, J.-B. (2011).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uration of volunteers' voluntary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3(1), 41-52]
- 류기형(2008). 자원봉사 직무특성이 활동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복지정책**, 35, 221-243.
- [Ryu, K.-H. (2008). A study on the impact to volunteering satisfaction and retention will of job characteristic factors. *Social Welfare Policy*, 35, 221-243.]
- 박철훈, 김행열(2013). 한국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의 영향 요인. **한국동북아논총**, 66, 305-329.
- [Park, C.-H., & Kim, H.-Y. (2013). The factors of the continuance will of volunteer work of Korean volunteer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66, 305-329.]
- 배성은, 김태진, 정윤수(2015).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지속의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자원봉사활동 기관의 관리와 자원봉사 직무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7, 29-55.
- [Bai, S. E., Kim, T. J., & Jung, Y. S. (2015). Study of two factors influencing continued commitment of volunteers in organizations: Volunteer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job.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7, 29-55]
- 오효근, 김옥(2008).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결정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사회복지정책**, 35,

- 297-327.
- [Oh, H.-K., & Kim, W. (2008). Path analysis of determinants influencing sustainment of volunteer activities among university students. *Social Welfare Policy*, 35, 297-327.
- Astin, A. W., & Sax, L. J. (1998). How undergraduates are affected by service participation. *Service Participation*, 39(3), 251-263.
- Bronk, K. C. (2008). Humility among adolescent purpose exemplars. *Journal of Research in Character Education*, 6(1), 35-51.
- Bronk, K. C. (2011). The role of purpose in life in healthy identity formation: A grounded model.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2011(132), 31-44.
- Bronk, K. C. (2013). *Purpose in Life: A critical component of optimal youth development*.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Chatman, J. A. (1989). Improving interactional organizational research: A model of person-organization fi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3), 333-349.
- Clary, E. G., & Snyder, M. (1999). The motivations to volunteer: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8(5), 156-159.
- Clary, E. G., Snyder, M., Ridge, R. D., Copeland, J., Stukas, A. A., Haugen, J., & Miene, P. (1998). Understanding and assessing the motivations of volunteers: a funct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51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mon, W. (2008). *Moral child: Nurturing children's natural moral growth*. Simon and Schuster.
- DeVellis, R. F. (2016).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Vol. 26). Sage publications.
- Diamantopoulos, A., Sarstedt, M., Fuchs, C., Wilczynski, P., & Kaiser, S. (2012). Guidelines for choosing between multi-item and single-item scales for construct measurement: a predictive validity perspectiv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3), 434-449.
- Edwards, J. R., & Cable, D. M. (2009). The value of value congru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4(3), 654-677.
- Finkelstein, M. A. (2008). Predictors of volunteer time: The changing contributions of motive fulfillment and role identit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6(10), 1353-1363.
- Fisher, G. G., Matthews, R. A., & Gibbons, A. M. (2016). Developing and investigating the use of single-item measures in organizational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1(1), 3-23.
- Gidron, B. (1983). Sources of job satisfaction among service volunteers.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2(1), 20-35.
- Han, H. (2015). Purpose as a moral virtue for flourishing. *Journal of Moral Education*, 44(3), 291-309.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ill, P. L., & Burrow, A. L. (2012). Viewing purpose through an Eriksonian lens. *Identity*, 12(1), 74-91.
- Jansen, K. J., & Kristof-Brown, A. (2006). Toward a multidimensional theory of person-environment fit.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193-212.
- Kristof, A. L. (1996). Person organization fit: An integrative review of its conceptualizations,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Personnel psychology*, 49(1), 1-49.
- Kristof-Brown, A. L., Zimmerman, R. D., & Johnson, E. C. (2005). Consequences of individuals' fit at work: a meta-analysis of person-job, person-group, and person-supervisor fit. *Personnel Psychology*, 58(2), 281-342.
- Marta, E., & Pozzi, M. (2008). Young people and volunteerism: A model of sustained volunteerism during the

-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5(1), 35-46.
- McKnight, P. E., & Kashdan, T. B. (2009). Purpose in life as a system that creates and sustains health and well-being: an integrative, testable theor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3(3), 242-251.
- Moran, S. (2014). What "purpose" means to youth: Are there cultures of purpos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8(3), 163-175.
- Moran, S. & Mariano, J. M. (2013). *How service-learning influences youth purpose around the world paper survey* [English version]. Clark University, Worcester, MA, and University of South Florida, Sarasota, FL, USA.
- Omoto, A. M., & Snyder, M. (1995). Sustained helping without obligation: motivation, longevity of service, and perceived attitude change among AIDS volunt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71.
- Ostroff, C., Shin, Y., & Kinicki, A. J. (2005). Multiple perspectives of congruence: Relationships between value congruence and employee attitud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6), 591-623.
- Penner, L. A. (2002). Dispositional and organizational influences on sustained volunteerism: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8(3), 447-467.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Steger, M. F., Kashdan, T. B., Sullivan, B. A., & Lorentz, D. (2008). Understanding the search for meaning in life: Personality, cognitive style, and the dynamic between seeking and experiencing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76(2), 199-228.
- Steger, M. F., Oishi, S., & Kashdan, T. B.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43-52.
- Tom, V. R. (1971). The role of personality and organizational images in the recruiting proce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6(5), 573-592.
- Tomkovich, C., Lester, S. W., Flunker, L., & Wells, T. A. (2008). Linking collegiate service? learning to future volunteerism: Implication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9(1), 3-26.
- Verquer, M. L., Beehr, T. A., & Wagner, S. H. (2003). A meta-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person - organization fit and work attitud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473-489.
- Van Vianen, A. E., Nijstad, B. A., & Voskuil, O. F. (2008). A person-environment fit approach to volunteerism: Volunteer personality fit and culture fit as predictors of affective outcome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0(2), 153-166.
- Wanous, J. P., Reichers, A. E., & Hudy, M. J. (1997). Overall job satisfaction: how good are single-item measu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2), 247-252.
- Weinstein, N., & Ryan, R. M. (2010). When helping helps: autonomous motivation for prosocial behavior and its influence on well-being for the helper and recipi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2), 222-244.
- Yorio, P. L., & Ye, F. (2012).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service-learning on the social, personal, and cognitive outcomes of learning.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1(1), 9-27.

신중호 (jshin21@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 중이며, 학습창의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음. 생애목표, 사회적 목적,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융합 교육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 중임.

김명섭 (edukms@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사회성 발달, 학교폭력, 삶의 목적, 재능계발교육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 중임.

김은지 (eunjiluv@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학습과 인지·정서의 관계, 교육과 신경과학의 연결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 중임.

김윤지 (yoonjikim.edu@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며 학습 동기와 열정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 중임.

이병윤 (bylee14@snu.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 센터에 재직 중임. 삶의 목적, 학업적 도움행동, 창의인성교육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 중임.